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202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을학기  
 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

“이 때를 위함이라”  
 For such a time as this  
 (여 4:14)

9월 7일~11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사랑부 30주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전해

### 사랑부에서 성도들에게 드리는 감사 편지

광림교회 창립 38주년 되던 해인 1991년 9월 8일, 마가의 다락방처럼 본당 옆 목자상 뒤 작은 방에서 시작된 사랑부가 어느덧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7명의 학생과 교사들로 시작한 사랑부가 지금은 4개 부서에서 100명의 학생과 90명의 교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사단법인 광림 산하의 3개 센터에서 40명의 이용인들이 활동하는 부서로 성장하였습니다. ‘빛의 아이들이 되라’며 언제나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마음으로, 눈빛으로, 자원 등으로 사랑부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채워주신 교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주일에는 세례를 받고, 여름에는 비전캠프에서 열리는 신앙캠프에 참여하고, 가을에는 운동회를 하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타러 갑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사랑나눔 중창단과 성가대에서 활동을 하

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레센터에서 미술활동을 통해 전시회를 합니다.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은 축구, 농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학생들이 그린 달력이 선교지에서는 전도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아쉽게도 활동을 쉬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모든 활동이 재개될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보르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린도전서 3:6)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차별의 돌을 걸러내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눈물과 땀으로 수고의 물을 주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부 아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수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셨고,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선물 받은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광

림의 교우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있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아이들이 되라’며 사랑부 학생들을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신 김선도 감독님과 박관순 사모님, 장애인 안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시고 사랑부에 비전을 제시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정석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사랑부와 함께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교사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모습을 통해 교사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랑부 학생들을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

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부는 앞으로도 그 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부서가 될 것입니다.

✚ 우형진 권사(사랑부 위원장)

〈사랑부 발자취 7면에 계속〉

#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꺾박하리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강렬한 음성은 이후의 모든 삶을 뒤바꾸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에 의한 역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인격과 성품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되며, 미래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강박했던 심령은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 첫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21절에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기적인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 모두가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이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욕망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때, 우리는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지 아니하며 실패와 좌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24절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둘째,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

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며, 오히려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해지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거룩함으로 오늘

도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흘러넘치는 거룩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 셋째,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22~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하며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며,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15:4)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려 살아갈 때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령을 따른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4)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맛을 잃은 이 세상에서 맛을 내며,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 “일상은 멈춰도, 나눔은 멈추지 않습니다”

## 〈광림 선한 나눔 운동〉 감리교 선교사 가정와 강남구 취약계층 도와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광림교회의 선한 나눔 운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간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을 펼쳤다. 광림교회 정문과 사회봉사관 2층 엘리베이터 앞, 주차장 입구에 커다란 나눔 박스를 설치하고 자유롭게 물품을 기증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생필품과 쌀, 즉석밥, 라면 등 따뜻한 온정이 나눔 박스에 차곡차곡 쌓였고 이웃을 향한 사랑 또한 가득 채워졌다. 9월 12일(주일) 3부 예배 후 성도들의 사랑

이 모여 만들어진 1,000여개의 나눔 박스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강남구 부구청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선교국에서 참석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2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선한 나눔 운동에 1,000여 박스의 귀한 선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정성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체감한 나눔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선교국 관계자는 “코로나로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

사와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광림교회의 선한 나눔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가위의 넉넉한 사랑을 담은 나눔 박스들은 감리교 해외 선교사 가정과 강남구의 소외 취약계층에 전달되었다. 광림의 성도들은 정성된 물품 나눔뿐 아니라 감사헌금과 온라인 헌금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다. 사업장의 생산 물품으로는 동국제약 유산균과 로션 2,000개, 라면 3,000개, 담터차 종류 등이 기증되었다. 교회의 기관과 부서도 기쁘게 동참해 청년부와 광림남교회는 다량의 마스크를,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는 많은 물품과 현금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기증된 의류와 속옷도 나눔 박스에 실렸다. 의료선교회는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탄자니아, 필리핀, 르완다 등 코로나로 인해 선교 사역이 어려운 해외선교지에 종합감기약과 구충제 등 의약품도 보냈다.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일상은 멈춰도 나눔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을 통해 성도들의 사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풍성한 한가위 선물이 되었다.

소현수 기자

### 포토 뉴스



**하반기 성경필사 배포**  
2021년 상반기 손으로 쓴 성경필사 제본을 성서 제출자에게 배포했다.



**가을학기 추츠라이프**  
9월 12일부터 양의문에서 ‘신약의 강’을 주제로 오전 9시~10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가을학기 어번던트 라이프**  
9월 12일부터 양의문에서 ‘묵상의 풍요로운 삶’을 주제로 오전 11시~12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가을선교장터**  
여선교회총연합회는 선교를 위한 각종 먹거리와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 담임목사 동정



- 9/12 사랑나눔박스전달식
- 9/14-15 감독회의
- 9/23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http://www.klmc.church)

## 온라인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핸드폰으로 실시간 참여가능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바로가기

2021년 2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지난 9월 7일(화) 개강했다. 코로나19로 대면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강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홈페이지 접속:**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배너광고 ◆실시간방송 바로가기 ◆지난방송 바로가기 ◆강의자료 다운로드가기 중 원하는 것 클릭

**둘째, 실시간 온라인 예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으로 들어가기

**셋째, 지난강의를 보는 방법:** 홈페이지 우측 상단 메뉴바 클릭 → 광림예배 → 양육 →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클릭 (지난 영상과 함께 해

당 강의의 자료까지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의 말씀을 깊이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며, 코로나19로 지친 영과 육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영적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백명순 기자

내 인생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전 7:29)

각 사람의 생김과 성격이 다르듯 주안에서 함께한 만남 또한 다릅니다. 주님 말씀을 바탕으로 목사님의 설교, 기도, 봉사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며 신앙생활 하는 곳이 교회라 생각합니다.

1982년 총력주일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광림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한 날입니다. 혼인 전, 사내 데이트를 할 때 처음 만난 시누이는 우리를 지원했지만 더욱 큰 계획은 교회로 전도하여 영혼구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저의 작은 믿음이 주님의 자녀로 확정된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과 성실한 신앙생활을 강조하셨던 김선도 감독님의 확신에 찬 설교 말씀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광림의 5대 전통 중 신실한 믿음의 삶, 풍요로운 삶은 저의 삶의 지표가 되었고 바로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40일 호렙산 기도회에서 매년 새로운 기도 제목과 응답의 선물은 나의 가장 귀한 신앙 체험입니다.

남편은 일찍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이유로 1회부터 홀로 다녔던 어느 날, 문득 남편과 동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함께 하기를 권했는데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고, 6시 이른 출근 시간을 고려해 아침 식사대용을 준비해서 출근길 차안에서 먹게 했습니다. 새벽마다 단정한 옷차림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는 저희 부부에게 강박했던 마음을 녹여 더욱 깊은 믿음으로 성장케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요 15:19) 주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까봐 우리가 감당할 만큼 단계 단계를 나누어 놓으십니다. 시작의 설렘과 끝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를 끝낸다는 것은 새로운 향해를 위한 시작의 단계입니다.

서로 사랑 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임을 지난 40여년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봉사했던 분들과 소중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흥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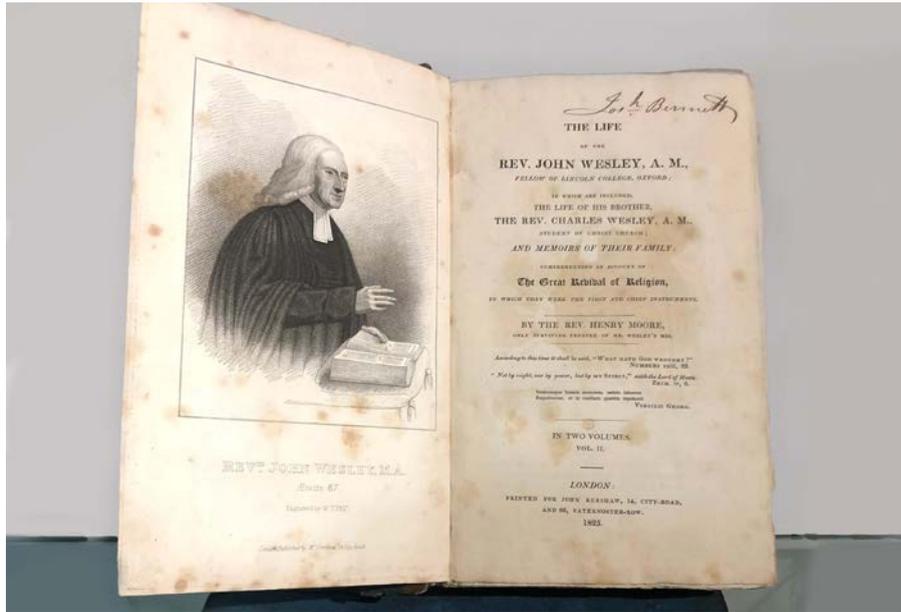


김영미 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 생활지도부 국장)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 16

감리교 운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헨리 무어'-2



웨슬리의 가장 유명한 전기 '존 웨슬리의 생애(The Life of the Rev. John Wesley, A. M)'는 그의 절친한 동역자인 헨리 무어가 썼습니다.

뉴스레터 지난 호에서 소개한 1권에 이어, 이번에 소개할 2권에는 첫 장에 87세 때 웨슬리 초상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 초상화는 당대 영국의 가장 유명했던 판화 작가 중 한 명인 윌리엄 토마스 프라이(William Thomas Fry, 1789~1843)의 작품입니다. 그는 주로 왕족, 제독, 당대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판화로 남겼습니다. 몇 장을 넘기면 그가 제작한 76세의 찰스 웨슬리 초상화

삽화도 나옵니다.

2권은 당시 영국의 종교적인 상황과 복음전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웨슬리 형제의 사역과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관심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찰스 웨슬리의 결혼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 감리교 운동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와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존 웨슬리의 생애 마지막 3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병상에서 그가 주고받은 편지들, 마지막 유언과 묘비에 적힌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헨리 무어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설교하는 복음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사상, 신학, 믿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뇌 등을 함께 나눴던 증인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존 웨슬리가 임명한 생존해있는 마지막 위원'이라고 했는데, 존 웨슬리가 자신의 사후 감리교를 이끌고 웨슬리 체플을 운영할 열두 명의 위원을 임명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라고 알려진 우리의 위대한 운동이 언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이나 감동이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영성을 잃어버리고도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헨리 무어는 누구보다도 존 웨슬리의 뜻을 잘 알았기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감리교 운동이 기존의 교단처럼 기관화되고 관습화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리교 운동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기관을 세우는 것은 의견의 반대편에 서서 감리교 운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광림홈페이지 사용설명서 A To Z 4

영어와 일본어로도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꼭, 이어폰을 준비하세요.

광림교회 3부 주일 예배는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동시통역이 되고 있다.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는 3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영어와 일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의 목소리와 통역사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린다고 당황하지 말자. 이럴 때에는 소지한 이어폰을 꺼내 가지고 있는 기기(PC, 태블릿, 휴대폰)

신속히 연결해 보자. 한쪽에서는 한국어, 다른 한쪽에서는 선택한 언어(영어/일본어)의 설교가 들린다.

물론 원하는 때 언제든지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어와 일본어로 지난 주일 예배 설교를 듣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능을 통해 영어와 일본어 공부의 기회로 나아가 외국인 전도의 기회로도 활용해 보자.

박희윤 기자

실시간 예배 바로가기



주일예배 바로가기(지난예배보기)



# 말씀과 교리를 통해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 <광림 청년부 LBS 가을학기 개강>



광림교회 청년부는 9월 11일(토)부터 11월 20일(토)까지, 11주간 LBS(LFC Bible School)을 진행합니다. 이번 2021년 가을학기 LBS에는 크리스천 베이직 II(기독교 기초 교리), 말씀묵상반, 감수성 훈련, 예배기초강의 등 4가지 강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58명의 청년들이 신청하여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LBS는 지난 봄학과 동일하게 강의를 신청한 인원에게 한하여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제공하여 비

대면으로 교육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광림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LBS 가을학기는 LBS 찬양팀과 함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뒤 유튜브(Youtube) 라이브 방송과 줌(Zoom)을 이용하여 3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크리스천 베이직 II 강의는 지난 봄학기에 이어 LBS를 통하여 청년들이 기독교 기초 교리를 배우며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배기초과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예배를 배우고 공동체 예배와 일상의 예배에 관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감수성 훈련과 말씀묵상반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수성 훈련 강의는 크리스천으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지혜를 배우며, 일상 가운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습니다.

말씀 묵상반은 토요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줌(Zoom)을 통해 한정된 소그룹 인원이 참여합니다.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함께 묵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여 앞으로 청년부 내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에 참여하는 일들이 퍼져가길 기대합니다.

크리스천 베이직에 참여하고 있는 왕범식 형제는 “삶을 살다보면 믿는 분들보다는 믿지 않는 분들과 더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을 전도하고 싶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는데 내 안에 그 말씀의 부족함과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LBS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수료하여 그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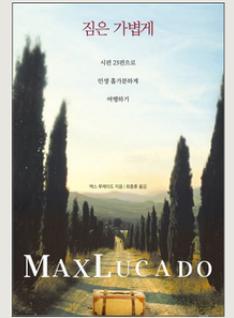
말씀묵상반에 참여하고 있는 유현수 형제는 “금번 LBS에 열린 말씀묵상반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묵상 방법을 배우고 실습함으로 제 일상의 예배를 더욱 깊게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일한 쉬는 시간인 토요일 아침 시간을 말씀묵상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더욱 경건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을학기 LBS를 통하여 광림의 청년들이 말씀과 교리를 배우면서 삶과 삶이 일치되어 건강한 신앙으로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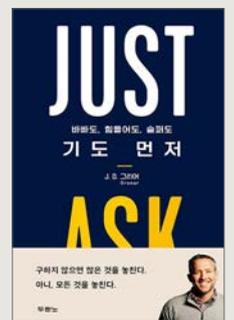
#### 책으로 쌓는 교양



#### [집은 가볍게]

맥스 루케이도 지음

'시편 23편으로 인생 즐기며 여행하기'라는 소제목을 가진 이 책은 불만, 권태, 슬픔, 두려움, 의심, 외로움, 낙심, 절망, 교만과 같은 짐과 보따리와 가방을 둘러매고 여행하여 쉽게 피로하고 지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시편 23편을 통해 깨닫게 해준다. 죄책감의 짐을 잔뜩 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없고,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데 남을 위로할 수 없고, 양팔 가득 자기 짐을 들고서 이웃의 짐을 나눠 질 수 없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짐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가벼운 차림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과도한 짐 꾸러미들을 던져 버려야 한다. 시편 23편은 이러한 짐을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을 위한 좋은 출발선이 된다.



#### [기도 먼저]

J. D. 그리어 지음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기도해야 하며, 얼마나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앓을 수도 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을 '기도'에서 찾는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그릇된 기도 습관들에서 벗어나 진짜 기도를 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 찾고, 그 방법을 제시한다. 예수님이 먼저 기도의 모델로 기도하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책을 따라 그 부분을 잘 실천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볼 수 있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 신희경 기자

#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

## 고등부 예배 회복 프로젝트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고등부(위원장: 김병남 장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학생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앙상태 자가진단' '성경 필사' '예배 10분 전 기도회'라는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등1부에서는 주일예배를 드린 후 공과공부 시간에 '신앙상태 자가진단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생들이 한 주간 삶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신앙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

지고 있다. 대면예배에 온 학생들은 공과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누고,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은 링크에 접속해서 설문지를 다운 받을 수 있다. 매주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답변이 달라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답변을 미루었던 질문에 점점 더 많이 작성해가는 학생들도 생겼다. 선생님들이 심방 중에 설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과봉 선물을 받는다.

고등2부는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학생들이 말씀을 가까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고시간에 부장 선생님이 '불후의 명곡'처럼 공을 2개 뽑는다. 한 공은 학생 이름, 한 공은 성경의 장이 적혀 있다. 당첨된 학생이 그 성경을 필사하는 방식이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학생을 위해 필사 용지를 택배로 보내주고 9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역자가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 한 것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서 고등부 예배실 강대상 위에



봉헌할 예정이다. 현재 요한복음을 필사 중이며 성경 필사는 분기마다 한 권 씩 계속 진행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등 1,2부에서는 장기적인 '예배 회복 프로젝트'로 '예배 10분 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부와 동일하게 총 3가지 기도제목으로 첫 번째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 성령 임재 기도, 세 번째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요즘 고등부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을 먼저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담임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다윗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 받았습니. 이 청소년시기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먼저 정립되면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정재혁 간사가 말했다.

고등부 학생들은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며 '예배자 다윗'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다.

###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 목회현장 -



이재근 목사(경찰대학교)

경찰대학 사역에서 주중모임과 주일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달랐었습니다. 주중모임인 수요예배, 목요종보기도회, 학생성경공부, 교직원신학공부에는 주로 학생, 교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예배에는 의경들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주말 외출이 허용되고 교직원들은 주말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지 않고 외부에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대학 안에서 복무하는 의경들의 30%가 주일예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공무원 수를 증원하고 의경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주일예배를 드리는 의경들이 하나둘씩 전역해서 나갔지만 신임을 뽑지 않으므로 주일예배 드리는 수가 점점 줄어갔습니다. 저는 제도변경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도 들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경찰대학교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요 나는 이 교회 머슴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염려할 필요가 있나? 주인이 알아서 하실텐데. 나는 그저 ‘내 양을 먹이랴고 명령하신 일, 시키신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대학 직원으로 경찰대학교교회에 출석했던 교우가 몇 년간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경찰대학으로 발령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대학 근처의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았는데 어른 예배는 경찰대학교교회가 좋은데 대학교회는 교회학교가 없어서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다음 주부터 주일 오전에 교회학교예배와 분반공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당에서 『위딤(Withim)』을 지원받아서 제가 매주 설교하고, 직원들이 교사를 맡아서 경찰대학 교회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직원들 가정에서 경찰대학교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은 의경이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직원들 가정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고난과 역경은 상한 심령으로 더욱 하나님을 볼뜰게 하므로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 광림남교회

##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여름성경학교는 교회학교 1년 행사 중 가장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유아·유치부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주일예배 시간에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호렙산 기도회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것 같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둘째 주 여름성경학교부터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고 두 친구가 여름성경학교를 계기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 특별 활동 버블쇼를 통해 새 친구가 초청되

어 계속해서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전도의 열매도 거두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름성경학교에 함께한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여름성경학교에서 배운 말씀대로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어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혜령 집사(광림남교회)

### 광림서교회

##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올해 초 예배 인원 제한이 조금씩 풀리며 예배가 회복되어 가던 중,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다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어려움

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심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기도하며 저녁예배팀 팀원들을 모집하였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필요한 모든 부분, 악기팀, 싱어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을 일으키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며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요은혜의 밤 찬양팀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에 힘쓰는 광림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 광림북교회

## 봉헌 3주년 기념 승합차량 구입



드디어 광림북교회에도 승합차량이 생겼습니다. 북교회 봉헌 3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승합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일찍이 코로나 이전부터 차량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운행은 물론, 경조사 참여, 교회학교와 선교회 모임을 위하여 교회승합차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고, 스테판·마리아 선교회 중심으로 틈틈이 차량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드 머니(Seed-Money)가 되었고, 성도님들께서 십시일반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주셔서 귀한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계약부터 출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차량이 출고 된 후, 북교회 경조회 임원 및 기관장 등 15명이 담임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하여 본당으로 달려왔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헌신한 북교회 성도님들의 손길에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과 차량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주셨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은혜롭고 안전하게 쓰임 받는 차량과 북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재 목사(광림북교회)

# <사랑부> '빛의 아이들'의 아름다운 발자취

## 예배, 음악, 체육, 생활훈련프로그램 등으로 치유와 복음 전해



사랑부의 시작, 단 한 명의 영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부는 광림교회 교인의 자녀 중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돕자는 취지에서 박관순 사모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기 한 달 전쯤, 당시 뉴스레터를 통해 '지체장애인을 위한 사랑반 교사 및 학생 모집'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내면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독립된 예배실이 없어서 불편했던 사랑부는 1993년 10월 24일, 드디어 새로 건축한 (구)웨슬리 교육관 4층(현재 사회봉사관 자리)에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했습니다. 화장실도 가깝고, 예배실 옆 분반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고, 1994년 9월 11일에 새 처소에서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7명으로 시작했던 예배는 점점 부흥돼 4주년 때는 교사와 학생 수를 합쳐 40여 명이 예배를 드렸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밤 행사에 참가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교회 행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당시 웨슬리 교육관 자리에 주차장이 마련되면서 사랑부는 목자상 뒤 대학부실을 예배실로 구조를 변경해 개축 감사 예배를 드렸고, 2003년 광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웨슬리 교육관이 개관하면서 2층 예배실을 사랑부가 사용하게 돼 현재는 1층과 2층에서 사랑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지체 장애인을 위한 '사랑반교사' 및 학생모집

본교회 교육관에서는 지체 부자유 장애인들의 예배와 신앙교육을 강화하고자 사랑반을 신설하고 교사와 학생을 적극 모집하고 있다. 성도들은 주위의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파악해 교육 1국 사무실(546-0151 교 328)로 연락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선한사일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1991년 8월 11일 광림뉴스레터 사랑부 모집 광고

사랑부 10주년, 말씀과 치유의 능력으로 도약하다

2001년 사랑부는 10주년을 맞아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 보았고, 이 수련회를 통해 사랑부 교사와 학생들은 장애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커다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현대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고, 2002년 1월 첫 겨울 수련회가 1박 2일로 광림 수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2002년 4월에는 장애인 주일에 맞춰 '장애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사랑부 특집호 뉴스레터가 발간되었습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1년 52주가 장애인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사랑부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치유하시는 능력 안에서 강건하며 큰 꿈을 이루시기를 소원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3년 장애인 기념주일에 맞춰 새롭게 옮긴 웨슬리 교육관에서 학부모 초청 예배를 드렸고, 장소가 안정되면서 이 때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예배, 음악, 미술, 체육, 생활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에게는 치유와 복음의 기회를 전했고, 2003년 12월 처음으로 '빛을 그리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부 학생들이 그린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04년에는 수요일에만 있던 사랑부 주중 프로그램을 수요일과 토요일에도 열면서 '사랑학교'로 명칭을 바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장애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2005년 사랑학교가 좀 더 많은 이용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광림이레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그해 11월에는 만 18세부터 40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 서비스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선교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광림주관보호센터를 개원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레센터와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인들은 꾸준히 그림과 비즈 공예 작품을 만들었고, 2010년 3월에는 교회 안이 아닌 인사동 경인 미술관에서 'Story Book: 우리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게 돼 작품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부의 미래,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다  
사랑부는 30주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여름수련회, 체육대회, 겨울수련회, 소식이 발

간, 음악회, 미술 작품 전시회 등 정규 행사와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팬데믹 상황 전에는 매년 비전랜드로 1박 2일의 여름수련회와 당일 일정으로 겨울수련회를 다녀왔고, 꾸준히 '사랑나눔 중창단'의 음악 활동과 '빛을 그리는 아이들' 미술 작품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2018년에는 사랑부 학생과 교사 30명이 베트남 선교를 떠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어버일주일 사랑의 집 방문과 뮤지컬 공연 등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랑부 학생들은 자체 트리니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교사들은 반별로 '성경통독반'을 꾸려가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적절하게 활용해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온라인으로 사랑부 수련회와 교사기도회 등을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은혜와 감사가 넘친 30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사랑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슴에 품으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예배를 지켜나가는 사랑부를 위해 앞으로도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한혜선 집사(사랑부 교사)





# 김선도 감독의 아흔 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14 김홍기 목사(前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김홍기 교수(전 감신대 총장)는 <목사 김선도2> '목회의 지도를 그리다'편에서 '구원의 확신과 성화적 영성으로 충만한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존 웨슬리와 김선도 목사의 설교를 비교하여 소개한다. 존 웨슬리의 전공자인 김 교수는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온 동양의 존 웨슬리 김선도 목사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감신대 기숙사 생활관장 시절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는 편지에 광림교회에서 거액의 헌금으로 장천생활관을 지어주었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래는 김홍기 교수의 글 요약본이다.

구순의 나이에도 끊임없는 자기 관리와 깊은 기도로 쇠하지 않는 영적인 능력과 강건함을 유지하는 김선도 목사에게 경이로움을 느낀다.

열두 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김선도 목사 전집의 설교 저술들을 읽고 연구하며 그의 설교에 웨슬리 신학에 등장하는 구원의 질서에 따른 구원의 확신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순간의 설교로 끝나지 않고 평생토록 성장과 성숙의 순례로 이어지며 예수로 완성되어가는 완전성화의 영적 달음박질임을 느낄 수 있다.

### <구원의 질서를 순례케 하는 설교> 선행적 은총과 은총의 낙관주의

김선도 목사의 설교 전집 1권에서 11권까지의 설교 663편은 양적인 면에서도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의 출판된 설교 양을 능가한다. 그의 설교 속에는 먼저 찾아오시는 선행적 은총과 은총의 낙관주의, 복음적 신인협조설(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은총과 나도 열심히 일하는 의지적 열심)로 구원이 시작되고 이러한 원리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자주 등장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라', '성공과 변영의 길을 걸으라', '정상에 이르는 열심 있는 크리스천' 등 그의 설교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 그의 은총의 낙관주의 설교는 희망과 용기와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더불어 경제 근대화,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 회개와 용서의 은총

김 목사는 탕자의 비유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이 역사하여 회개를 촉발함

을 설교한다. 탕자의 비유는 복음주의 복음이며 비유 중의 면류관이라고 해석한다. 회개는 탕자처럼 방향전환을 하고 고향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강조한다.

### 믿음과 의롭다하심, 거듭남, 거룩함의 은총

믿음은 구원의 문이다. 믿음으로 구원과 거듭남이 일어난다. 김선도 목사는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계 3:20)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야 구원에 이르며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총, '칭의'를 얻는다고 했다.

칭의는 죄 사함을 받는 속죄의 은총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속죄함의 기쁨과 평화의 체험을 소개한다.

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강조한다.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 성령을 통해 거듭나 성품의 변화까지 이르러야 함을 강조한다. 김선도 목사는 거듭남을 성화의 출발, 성화의 시작으로 보며 거듭남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탄생이라면 성화는 그 아이가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아기가 아픔을 통하여 성장하듯 시련과 인내,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함을 주장한다. 거룩한 성품을 만드는 비결로 좋은 습관을 강조하며 좋은 습관은 성경읽기와 묵상, 기도, 금식, 성만찬 등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의 가치는 행함 속에서 온전한 신앙이 발전하는 것으로 사랑의 실천이 생명을 주는 힘이며 감사를 성숙한 크리스천의 최고 덕목으로 꼽았다.

### <작은 예수로 성숙하는 순례를 안내하는 성화론적 설교>

#### 기도와 성화

김선도 목사는 구원의 확증에 대해 지속적인 영적순례를 작은 예수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선포한다. 도전적인 설교를 통해 마치 운동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질주하도록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는다.

김 목사는 영적여정의 첫 수련으로 '기도'를 꼽는다.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루의 생활이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게 된다. 했던 웨슬리처럼 그는 평생토록 매일 새벽기도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경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은 경건수련이며 이웃사랑은 사랑수련으로 모두 거룩한 성품과 관계된다. 흔히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선도 목사는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는 영성훈련이 계속되어야 하며 더욱 기도의 필요함을 강조한다.

#### 십계명과 행복한 삶으로 성화케 하는 윤리

김선도 목사는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며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관계로 행복하게 사는 사랑의 윤리라고 정의한다. 예수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의 이미지로 변화되는 성화의 원동력이 십계명임을 강조한다. 그의 설교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키면 그 밖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계명의 원천이라고 했다.

#### 산상수훈과 인격변화의 행복으로서의 성화

성품이 예수화 되는 것이 성화이며 그 핵심이 산상수훈임을 김 목사는 힘주어 설교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를 해석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됨을 언급한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찾아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이 광림교회에 온 목적이 되어야한다고 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과 공허히 여기는 사람을 공통적으로 해석하며 의에 주린 사람은 가난한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화평이 있어야 하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의인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성화



▲2005년 광림 성도들의 헌신으로 봉헌된 감신대 장천생활관

사랑은 아가페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향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의 인격을 소유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실천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선교전략이다.

#### 영성심리학적 치유의 설교

김선도 목사의 열두 권의 설교전집을 읽으며 폭넓은 구원의 세계와 은혜의 바다로 헤엄치게 만드는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는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점진적인 영적 순례를 하게 만들며 영적 마라톤을 완주 할 수 있게 한다. 그의 설교는 말씀으로 청중을 치료하고 집단으로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집단 치유의 상담학적, 심리학적, 그것을 뛰어넘는 영성치유학적 치유의 설교다. 실패의 아픔을 갖고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기쁨과 평화를 안겨준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찾아오게 만드는 치유의 기적, 구원의 메시지다.

정리: 이선아 기자



2004년 어버이주일에 설교하시는 김선도 감독님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목사 김선도>**

빛의숲서점: 02-2056-5771  
**절찬 판매중**

